

▶ 우리병원을 소개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G 태동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1400병상 규모, 일 외래 환자 5000명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입니다. 1998년 설립된 가천의대와 2012년 통합 출범한 가천대학교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천대 길병원 시작은 1958년 인천 중구 용동에서 개원한 이길여 산부인과 의원이며 때문에 산부인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G 성장

가천대 길병원은 1994년 4월 18일 본관 맞은편에 우리나라 의료기관 최초로 여성질환 치료 전문병원인 여성클리닉센터(소장 최승헌)를 개원했습니다. 여성클리닉센터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248병상, 신생아실 200병상 등 여성의 주산기에 맞춘 최신시설을 갖추었습니다. 2011년에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가 인천 지역암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암센터 내에 여성암센터를 별도로 개소하고 부인중앙클리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2013년에는 기존의 불임클리닉을 아이바람 클리닉으로 개명하며 국내 최초로 24시간 배아모니터링 시스템인 '프리모비전'을 도입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인천지역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2017), 남임우울증상담센터(2018)로 지정돼 있습니다.



G 구성원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는 현재 부인종양파트 신진우 (주임교수), 이광범, 이승호, 임소이 교수 4명, 생식내분비파트 전승주 교수 1명, 모체태아의학파트 김석영 교수 1명을 포함한 6명의 교수와 조정주(부인종양), 이예흔(생식내분비), 이유정(생식내분비) 3명의 전임의, 전공의 4년차 4명, 3년차 4명, 1년차 2명 모두 21명의 구성원이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G 진료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는 연간 35000여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며 인천, 경기 일부, 충남 서해안 여성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암은 물론 불임 여성, 고위험 산모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치료와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인종양파트는 경인지역 여성들은 물론 경인, 충남 지역 환자들까지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연간 4000여 건의 최소침습적 수술뿐만 아니라 근치적자궁절제술, 세포감퇴수술 등 고난도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00여 건의 자궁경부암, 자궁암, 난소암 등 비교적 흔한 여성 생식암부터 외음부암, 복막암 등 흔하지 않은 질환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환자를 경험하고 치료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치료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다학제치료를 도입함으로써 암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시하고 있고 종전의 치료성적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고 있으며 많은 환자로 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종양파트에서는 이행성연구, 유전자치료, 면역치료, 세포치료,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연 1회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 연수강좌를 개최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진료연계를 유도하고 각 질환별 치료의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도입한 프리모비전과 동결배아 이식 기술을 바탕으로, 난임 부부에게 최적화된 개인 솔루션을 제공해 2017년 기준 체외 수정술 임신 성공률을 64%(혈액검사 기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길병원 산부인과는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며 고위험 산모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 심장내과, 외상외과 등과도 24시간 대기(on call)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재 길병원 산부인과에서는 부인종양 컨퍼런스를 주 1회 진행하여 최신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최신지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전임의와 전공의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 부인종양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여성 생식기 암에 대한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연 2회 전임의 및 전공의의 복강경 및 수술 테크닉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병원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사실적으로 구현한 모형으로 실제 수술에 버금가는 환경에서 양질의 트레이닝으로 실전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서남부 수도권에 위치한 17개 산부인과 연계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병원의 발생한 케이스를 리뷰하고 함께 최적의 치료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여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체태아의학 파트에서는 매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파트와 공동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의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있고 생식내분비파트에서는 매주 난임환자의 치료 성적을 평가하고 최신 저널을 리뷰하여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봉사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자궁암 검진을 60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검진과 치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60년대에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 무료 검진을 시행해오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3만 명의 여성들이 지금까지 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 검진제도가 발전했지만, 지역 여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여성암검진의 필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